

6. 둔 포 면

[64] 관터의 옛탑

둔포면 송용리라는 곳에 연대를 알 수 없는 오래된 탑이 있으며 관대리 일대를 옛 기왓조각이 수없이 발견되는데 이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그곳은 커다란 고을이었다. 주위의 고을에서도 그곳을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생활과 윤택한 생활을 영위했다.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이었으며 저녁 때면 나는 연기는 풍요함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한다.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항상 초목이 우거져 산새들은 굶이지 않고 울음을 보냈다.

그 고을에는 유난히도 부자인 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무척이나 절실한 불교인이었기에 집안에는 조그만 불상을 모시고는 불공하고 있었다. 가까운 근처에 작은 암자라도 있었으면 좋으려만 큰 그 고을에 이상히도 절 하나가 없었다. 사실 윤부자 내외가 불상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늙어 가도록 하나도 없는 자식을 부처님을 손을 빌려서라도 그들의 단 하나의 유일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윤부자 내외는 날마다 정성을 들이면서 자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항상 불상앞에서 표현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그 날도 정성을 드린 후 부인이 이런말을 했다. 저 우리 고을의 가까운 곳에 절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크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우리 고을에 절하나 짓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 하진 않겠지요? 우리같이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것보다 절을 하나 세워 여러사람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말을 윤부자는 무릎을 탁치며 만면에 웃음을 띄웠다.

부인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진작 못했는지 모르겠구려 그렇게 합시다. 우선 고을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의 뜻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뜻을 모아 봅시다. 그들 내외는 그런 말을 나누곤 두 손을 잡고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고을 사람들은 물론 대찬성이었고 좋은 절터를 잡기로 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일과 같이 열의를 보였고 큰 경사라도 난 것과 같이 여겼다. 또 법당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일 탑을 하나 세워 그들이 절을 세우는 뜻을 남기기로 했다. 5월에 시작한 그 일은 점점 더워져 가는 날씨에 조금씩 형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쏟은 노력과 땀방울들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후에 찾아올 즐거움과 보람을 생각할 뿐이었다. 물론 윤부자 내외의 기대는 무척이나 컸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냄에 있어 절이 나타내는 모습과 함께 더해진 것 같았다. 시작한지 열달만에 절은 그 위엄을 내보였고 그날 그 고을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고 커다란 탑 앞에서 제를 올렸다. 무엇인지 알수 없는 신비로움이 이 절에서 내려지는 것 같아 고을인들은 황홀해 했다. 윤부자 내외는 그 절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고 그래서인지 몇일후에 윤부자 부인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윤부자 부인이 꿈이었는데 불공을 드리다 웬지 다른때 느끼지 못한 피곤을 느껴 잠시 법당안에서 졸고 있었다. 그때 그 부인의 꿈에 절앞의 커다란 탑이 또렷이 보였고 그 탑앞에 웬 동자가 서 있더니 부인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다. 부인이 신기함에 손을 벌리자 부인의 품안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꿈을 깼다.

부인은 괴이하면서도 그 꿈에 본 동자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음에 조금은 아쉬움이 맴돌았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뒤 태기가 있었고 그것을 안 고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제야 윤부자 내외의 감동하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을 모신 절을 향해 합장을 했다. 윤부자 집안의 즐거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덧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는데 꿈에 나타난 그 옥동자와 같았다. 윤부자 내외는 정성을 The아 아들을 키웠다. 평화롭고 아무 화없이 재내던 어느날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가까운 곳의 섬나라이며 미개인들이 왜구들이 침략해 온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다. 고을 사람들은 설마 이곳까지 오라하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뭄이 되어 조금씩 잃어가는 농작물과 전과는 다른 고을의 모습에 가슴을 조바렸다. 때는 왜, 이 고을에도 왜구의 발길을 들여 놓아졌고 고을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왜구의 발길에 짓밟히느냐 하고 걱정을 했다. 물론 윤부자 내외는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아들과 또 몇대씩 내려오면서 살은 그 집을 버리고 타지로 갈 수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왜구의 횡포가 너무나 참혹하자 하나 둘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고 몇몇의 마을 사람들과 윤부자 내외는 커다란 고을안에 남아

부처님의 덕으로 자기들을 화에서 면해 주기만을 빌었다.

그러나 결국 그 고을은 왜구들의 손에 들어갔고 커다랗고 부유하던 곳은 왜구의 횡포로 폐허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고을에 남아있던 윤부자 내외와 고을 사람 몇은 왜구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고을은 왜구들의 손에 부수어졌으나 그들 모두가 피땀을 흘려세운 절의 탑은 하나도 손실이 없이 남아 있었다. 그 절은 왜구들의 손에 불타버려 없어졌지만.....

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처님의 힘으로 동자가 나온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부처님의 힘이 있었나보다 하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했다.

지금은 옛고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탑을 이 고을 사람들은 "관터의 탑"이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해 주는 이 전설은 자기의 정든 고향과 신의 은혜를 받은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우리 조상들의 인간성이 보여지는 것 같다. 난 이 관대리에 전해지는 전설을 되새겨 보며 슬픈 종말을 맞은 이고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이런 슬픔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손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65] 남 창

이조때 둔포며에서 국세저장 창고가 있었다 한다. 심엄한 경비로 지키고 있어 요새 같이도 보였다. 이 마을에 남동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도 그 창고의 경비를 맡아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히 부지런하여 상관의 사랑을 받던터라 남들에게는 보여 주지도 않은 창고 열쇠를 두는 곳까지 알고 있었다. 어느날도 남동이는 눈에 크게 뜨고 주위를 지키고 있었다. 집안은 가난하고 어머니는 앓고 계셔서 걱정거리가 많았다. 또한 자기는 벌써 30이 아닌가? 장가도 들어야하겠는데 워낙 가난하여 종매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시도 국세에 흑심을 내본일이 없었다.

그날은 모처럼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그때 마을에서 소문이 나쁜 순철이라는 자가 다가왔다. 늙으신 어머님께 보약은커녕 약조차도 못사드린 것이 한이 아닌가? 장가도 가겠지? 하며 아픈데를 찌르던 순철이는 "자네는 그 열쇠가 어디있는지 알거야 자네라면 거기에 가기 쉽겠지? 살짝 가져오게 내 반을 뚝 떼어줄세. 어머님이 앓고 계시지 않는가?하며 은근히 꼬였다. 남동은 마침 앓고 계시는 어머님 걱정엔 연일 밤잠을 못 이루던 즈음이었으므로 귀하 흑할 수밖에 없었다. 순철이의 물음에 알겠다고 말한후 잔뜩 취해 집에 왔으나 걱정은 더 늘었다. 이웃 마을로 도망간다고 안잡힐 보장도 없으려니와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을 친자식같이 돌보시던 장군님께 죄송한 생각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도 창고에 나간 남동은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책임감 때문에 어머님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도 없어 부모님께 불효하고도 책임감을 찾을 자격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동은 기회를 살폈다. 우연히 심부름으로 장군께 다녀오는 길에 남동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아무도 남동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경계가 허술했던 것이다. 남동은 약속대로 열쇠를 순철에게 건네주려 발길을 향했다. 가슴속은 고민으로 들끓었다. 나무들 사이에 순철은 숨어 있었다. 전해주려고 생각했던 남동은 순간 장군님을 떠올렸다. 굶어 죽을지언정 도둑질을 하지 말거나 목이 잘릴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신 어머님이 이 일을 아신다면 혀를 깨물고 돌아가실 거다 하는생각에 남동은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순철은 순간 남동의 의도를 파악했다. 남동이 뒤돌아선 이유는 열쇠를 줄 마음이 없는 것이고 뛰는 이유는 자기를 고발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순철은 단검을 빼들며 던졌다.

남동은 자기의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칼을 맞은 줄 았았으나 멈출 수가 없었다. 칼이 쏙히쳐 장군앞으로 달려 들어간 남동은 고통으로 창백하여 헉헉거리면서도 열쇠를 바치고 사정을 고한 후 죽고 말았다. 장군은 급히 군사를 보내 순철을 잡아들여 사실을 확인했고 남동의 어머님을 모셔왔다.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식이 순간 죄를 저지를 뻔한 것을 안 남동의 어머니는 섭게 울었다.

장군은 남동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다짐했다. "남창"은 당시 행정구역이었던 평택의 남쪽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어쩌면 남동은 남쪽의 창고인 남창을 지키기 위해 태어 났는지도 모른다. 평택의 남쪽이라 남쪽인지 남동이가 지켜서 남창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이 투철한 책임감은 본 받을 일이다.